## TV 연속극문학에서 대사형상의 특성

안 철 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텔레비죤극은 텔레비죤영화와 달리 대 사를 기본형상수단으로 삼는다.》

(**《김정일**선집**》**제16권 증보판 341페지)

영화문학이나 TV영화문학에서는 등장 인물들의 행동을 기본형상수단으로 한다 면 TV련속극문학에서는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기본형상수단으로 하여 인간과 그 생활을 그린다.

최근에 TV극문학창작이 TV련속극문학을 기본형태로 하여 발전하고있는 조건에서 대사형상을 사상예술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TV련속극문학의 대사형상을 사상예술 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자면 그 특성 을 잘 아는것이 중요하다.

TV련속극문학에서 대사형상의 특성은 무엇보다먼저 비약과 함축수법보다 증폭확 대수법을 활용한다는데 있다.

영화문학이나 TV영화문학에서는 짧은 시간동안에 작품에 담아야 할 생활들을 다 펼쳐보여야 하는 조건에서 될수록이면 한 장면의 길이를 짧게 정해야 한다.

실례로 단편소설 《조선시간》에 있는 《우섭은 대학과 연구소, 도서관에 들려 필 요한 문헌들을 찾아보고 빌리고 하느라 점 심먹을 짬도 없이 바빴다.》라는 문장을 보 면 한개의 문장에 무려 3개의 큰 장소가 설정되여있다.

단부작영화문학에 우의 문장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동을 보여주려면 적어도 6~ 7개의 장면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많은 장면들이 설정되는 경우 매 장면들은 어차피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는것이다. 때문에 단부작영화문학에서는 매 장면 들을 짧게 하면서 생활을 집중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대사를 극력 아껴쓰고있다. 이 로부터 영화문학에서는 대사형상에서 비약 과 함축의 수법을 많이 쓴다.

실례로 영화문학 《도라지꽃》에서 박원 봉의 아들 박세룡이 진송화의 딸 달래와 처음 만나는 장면을 들수 있다.

이 장면은 박세룡과 달래가 서로 친숙하게 해야 할 형상과제를 안고있다. 그래야 달래가 관리위원장인 자기 어머니에게 박원봉의 아들을 농장에 받아달라고 뗴질할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것이다.

그런데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다가 처녀, 총각인것으로 하여 그들사이가 단 한 장면을 통하여 서로 친숙해진다는것은 불가능 한 일이다. 그들이 서로 친숙해지자면 수 많은 대화가 서로 오가야만이 가능하다.

영화문학에서는 이 장면을 길게 주어서 는 안되기때문에 가능한껏 대사를 함축하 고 비약하는 수법을 리용하였다.

그리하여 영화문학에서는 세룡이가 다리우에 들어서는 순간에 달래가 송아지를 뒤쫓아오고 송아지를 붙잡아주느라 강물에 나떨어진 세룡이를 고맙게 여긴 달래가 그의 젖은 옷을 모닥불을 피워 말리워주는 장면으로 처리하였다. 그리하여 대사 몇마디 없이도 그들사이는 순간에 친숙해진다.

이처럼 영화문학에서는 인간과 그 생활을 행동성이 강한 묘사로 형상하여 대사형 상을 비약, 함축하고있다.

그러나 TV런속극문학의 대사형상인 경 우에는 이와 다르다.

TV련속극문학에서는 행동적인 묘사도 많이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등장인물 의 대사를 통하여 인간성격과 생활을 보 여준다.

TV련속극문학에서는 많은 장면들에서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증폭확대하여 깊이있 게 파고들어 형상한다. 대사를 증폭확대하 는 수법은 TV련속극문학의 대사형상에서 중요한 특성으로 된다.

TV련속극문학 《백금산》에는 주인공 김철훈이 7호굴착기소대에 소대장으로 부임되여 처음 소대원들과 만나는 장면 이 있다.

이 장면의 형상과제는 관중들에게 주인 공이 사업하게 될 7호굴착기소대의 소대 원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들인가를 비롯하 여 7호굴착기소대의 현 실태가 어떠한가 를 소개해주는것이다.

• • •

## 7호굴착기소대 휴계실

광구장이 김철훈을 데리고 들어선다.

일여덟명의 광부들이 호기심어린 눈으로 광구장과 그뒤를 따라 들어오는 김철훈을 훑어본다.

얼굴을 찡그리는 광구장.

《앉은 꼴들이 뭐요? 류혁이, 여기 오지 못하겠어?》

맨 뒤구석에 앉아있던 류혁이 마지못해 일어나서 자리를 옮겨앉는다.

...

이렇게 시작된 장면에서는 먼저 광구장의 대사를 통하여 김철훈이 7호굴착기소대의 소대장으로 임명되었다는것을 알린다. 그리고 광구장의 장황한 꾸짖음을 통하여 1966년도에 광산에 제대되여온 제대군인들이 1961년도에 제대되여온 제대군인들 보다 생활을 잘못하고있다는 인식을 관중들에게 준다.

첫마디부터 욕설인 광구장의 대사와 그의 말에 굴착기가 제일 낡아서 그런다고 반발해나서는 영기의 대사를 통하여 7호 굴착기소대가 광산적으로 제일 락후한 소 대라는것을 충분히 알게 해준다.

이어 광구장이 제대군인인 신양건을 걸고 들면서 그가 아직도 장가가지 못하고 처녀 들에게 채우고 다니는 문제를 끄집어낸다.

이리하여 신양건을 부실하다고 걸고드는 광구장과 광산에 시집오기 싫어하는 처녀들때문에 선을 볼 때마다 실패하는 억울한 심정을 묵새기지 못하는 신양건사이에 옥신각신하는 대사들이 오고간다.

이들사이의 대화를 통하여 지금까지 신양건이 겪었을 마음속고충이 충분히 안겨올뿐아니라 광산에서 제대군인들의 혼사문제가 그들의 안착문제와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것을 보여주면서 이 문제가앞으로 작품에서 어떻게 극적으로 펼쳐지겠는가하는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어 광구장이 나가고 소대원들앞에서 부임인사하는 김철훈과 소대원들사이의 대 화가 펼쳐진다.

김철훈은 새로 부임된 소대장을 기대어 린 눈으로 바라보는 소대원들에게 자기는 별로 할 소리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소대원 들을 실망시킨다.

이어 신양건은 김철훈에게 굴착기를 살려낼수 있는 방도가 준비되여있는가고들이대며 김철훈의 대답이 시원치 않자새로 온 소대장이 대책이 없다면 굴진중대로 가고말겠다고 말한다. 그통에 신양건과 소대원들사이에 심각한 말다툼이오고간다.

말다툼은 인신공격으로 넘어감으로써 소 대원들호상간에 존재하고있는 모순들과 결 함의 원인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

그것은 영기와 류혁이와의 대화에서 절정에 달한다. 류혁은 자기가 공무직장에 가겠다는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락후분자로 보고 쩍하면 딴데로 가라는 영기가 보기 싫어서라고 내놓고 말한다. 김철훈이류혁이를 다른 곳에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류혁은 문을 박차고 나가버린다.

이렇게 이 장면은 많은 사연을 안고있 는 이야기들이 한장소에 모여앉은 여러 사 람들의 수많은 대화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형상되고있다. 이로부터 이 장면은 1부의 구성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분량이 많아지게 되였다.

TV련속극문학에서 대사가 단부작영화 문학이나 TV영화문학과 달리 증폭과 확대 의 수법으로 형상되는것은 TV련속극문 학이 장면구성에서 시간적제한을 받지 않기때문이다.

즉 TV련속극문학은 단부작영화문학과 달리 인간과 그 생활을 담을수 있는 그릇 이 상대적으로 큰것이다. 그리고 TV련속 극문학자체가 생활무대를 일정하게 고착할 것을 요구하는 특성도 대사를 증폭확대하 여 형상하게 하는 원인으로 된다.

TV런속극문학에서는 장소가 일정하게 고착되여있어야 하는것만큼 일단 정해진 장소에서 될수록이면 많은 이야기를 집중 적으로 보여주는것이 원칙이다.

TV련속극문학의 대사형상에서 대화를 증폭확대하는 기교를 받아들이자면 등장 인물들사이의 대화가 아무리 길게 형상되여도 모든 대사들이 다 들을 맛이 나게 형상되여야 한다. 또한 대사들의 내용이한자리에서 머무르게 하지 말고 새로운생활과 인식적가치가 있는 내용들이 련이어 드러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음에무슨 말들이 나올가 하는 극적기대감이나게 대사를 잘 형상하여야 한다.

TV련속극문학에서 대사형상의 특성은 다음으로 영화문학이나 TV영화문학과는 달리한 인물의 대사가 매우 길게 형상된다는데 있다.

한 인물의 대사를 길게 형상하는것은 단부작영화문학이나 또 TV영화문학에서는 전혀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TV련속극문학에서는 이런 대사 가 다분히 형상된다.

실례로 TV련속극문학 《처녀사격선수들》에서 박로인이 처녀사격선수들에게 들

려주는 이야기형식의 대사를 들수 있다.

박로인은 전쟁시기 저격수였던 자기와 다른 저격수들이 전승의 열병식에 참가하 고 그길로 국제사격경기에 참가할 선수로 선발되여 국제경기에 나가서 우승하기까지 의 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성한 집이라군 한채도 없고 온통 재가루만 날리는 속에서 허허벌판에 천막 을 치고 전쟁시기 쓰던 보총, 권총들을 가 지고 우등불에 손을 쬐여가면서 훈련하던 때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로인은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복구 건설에 떨쳐나서던 때였지만 어버이수령님께 서 외국에 가면 호텔도 제일 좋은 호텔에 들라고 하시면서 절대로 주접이 들지 말며 전쟁에서 싸워이긴 영웅조선의 병사답게 가슴을 쭉 펴고 행동하라고 하신 뜻깊은 사연을 감동깊이 전해준다.

계속하여 그들이 가져간 총은 항일유격 대원들이 쓰던 오랜 총이여서 국제심판원 들이 총도 낡았거니와 경기용총보다 총신 이 길기때문에 선수권대회에 참가할수 없 다고 하였지만 주저하지 않고 밤새 쇠톱을 얻어다가 총신들을 모두 자르고 조성을 옮 겨놓던 사실을 이야기해준다.

박로인은 그때 일부 사람들은 우리 선수들의 총을 보고 비웃었지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1211고지전호에 서있는 심정으로, 한놈의 적도 놓치지 말라고 당부하던 전우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총을 쏘고 또 쏘아 단체2등을 하고 경기장상공에 공화국기발을 뛰우던 감정을 토로한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이란 누구나 인생말년에 후대들에게 무엇인가 물려주고 싶어하는데 세상을 둘러보면 한생을 두고 모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지위와 가문의 명예를 넘겨주는 사람도 있으며 또 아무것도 물려줄것이 없어서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전화의 불비속을 헤쳐온 자신들의 세대는 후대들에게 재산

이나 지위나 명예 같은것과는 비할수 없는 가장 값비싼 재부,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해야 우리 조국도 있고 행복한 앞 날도 있다는 정신력을 넘겨주고싶다고 말 한다.

TV련속극문학에서 이런 긴 대사가 형 상되는것은 TV련속극문학이 대사를 기본 형상수단으로 삼기때문이다.

긴 대사가 TV극문학에 허용되는것은 용량상제한을 받지 않는 TV극문학의 특성과도 관계되여있지만 문제는 긴 대사자체가하나의 극적이고 또 감흥이 큰 이야기체계를 갖추고있기때문이다.

극적감흥은 관중이 이미 다 알고있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 알게 되는 새 로운 이야기라야 생겨난다. 이와 함께 대 사에 담겨지는 이야기가 강한 극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

박로인의 대사에 담겨진 이야기는 전쟁이 금방 끝난 시기에 우리 나라 사격선수들이 국제경기에 나가서 우승한 이야기로서 강렬한 극성을 띤다.

이런것으로 하여 박로인의 대사는 비록 길게 형상되였지만 관중들에게 깊은 감흥 을 주는것이다.

이것은 TV런속극문학에서 아무리 긴 대 사라도 극적견인력이 강하게 잘 엮으면 얼 마든지 훌륭하게 형상할수 있다는것을 보여 준다.

TV런속극문학에서 대사형상의 특성은 다음으로 인물의 성격이나 사건, 정황을 주로 등장인물들사이의 대화를 통하여 나 타낸다는데 있다.

단부작영화문학이나 TV영화문학에서 는 인물의 성격이나 사건, 정황을 될수 있으면 행동적인 묘사로 처리하는 경우 가 많다.

영화문학 《이 세상 끝까지》에서는 주인 공 태성할머니가 며칠밤을 패면서 천을 짠 다음 그것을 판 돈으로 라지오를 사오는 장면을 단 한마디의 대사도 없이행동적인 묘사로 형상하였다. 그러나 TV련속극문학에서 이런 장면을 형상한다면 아들 정철을 당의 뜻대로 살도록하기 위해 애쓰는 태성할머니의 내면심리를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속에서 구체적인 대사를 통해 형상한다.

이와 같이 TV련속극문학의 대사는 단 부작영화문학이나 TV영화문학과는 달리 독특한 형상생리를 가지고 형상된다.

TV런속극문학에서 대사는 단순히 길게 구체적으로 형상된다는데 그 특성이 있는것이 아니다. TV런속극문학의 대사형상은 구체적으로 형상되는 대사들이 인간성격의 본질을 밝히고 생활의 진실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여 작품이 제기하는 인간문제, 사회적문제를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풀어낼 때만이 그 특성을 적극 살려나갈수 있다.

TV런속극문학창작가들은 TV런속극문학의 대사형상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시대정신이 나래치고 우리 당의 문명국건설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시대의 명작들을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